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대학부

7

2014
July



이끄시는 하나님

- 1과 · 주의 죽으심을 고린도전서 11:26
- 2과 · 하나님의 선택 창세기 25:19~23
- 3과 · 속이고 속는 자, 아담 창세기 47:9
- 4과 · 인생의 참된 주인 창세기 37: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충현의 만나 대학부

7

2014
July

이끄시는 하나님

1과 · 주의 죽으심을 고린도전서 11:26

삼위 하나님의 회생을 기억하고 본받자

2과 · 하나님의 선택 창세기 25:19~23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3과 · 속이고 속는 자, 야곱 창세기 47:9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4과 · 인생의 참된 주인 창세기 37:1~5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자

1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주의 죽으심을

초 점

삼위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본받자

본 문 고린도전서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룩한 의식이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은혜의 수단인 성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떡과 잔을 대할 때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고전 11:27

삼위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함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지만, 더 넓게 보면 삼위 하나님의 희생까지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만의 고통과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요 3:16)

성자 예수님(히 13:12)

성령 하나님(롬 8:26)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아들의 희생,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헌신을 결단함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제자가 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마 16:24 _____

둘째,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청됩니다.

요 12:24 _____

그러므로 성찬의 식탁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요, 구체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주님은 완벽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려는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결단함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우선, 구원의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한 번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마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는 달리 천국행 표를 파는 장사꾼처럼 구원에 대한 보증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구원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성화에 대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 살며, 죄를 짓고 즐기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 7:21,23

신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면 신랑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당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성찬의 식탁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것은 구원의 소중함과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로 먹고 마신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렘 3:20

믿음의 기도

- ❶ 성찬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현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 ❷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택

초 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본 문 창세기 25:19~23

¹⁹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²⁰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밋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²¹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²²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²³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으므로 그가 그 나이에 이삭을 얻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가 죽은 뒤에도 부인을 얻어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창 25장 참고). 즉 여인만 젊으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니라 사라의 상황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 18:11 _____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사라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창 25:21 _____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비롯해 세레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불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불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불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죄라는 것은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죄라기보다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감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불임의 문제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볼 때 어떠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불임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임으로 고통당했던 여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불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창 18:14 _____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불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서 대하며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육적인 자녀보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 28:19~20 _____

다툼의 시작

창 25:22

리브가의 태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 이 둘은 서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통해서 이루어질 두 민족이 서로 갈등과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과 에서의 사이는 좋지 않았으며, 이후 에서를 통해 형성되는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괴롭혔고,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물리치게 됩니다.

삼하 8:13

시 137:7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부터 다투며, 장차 두 민족을 이루어 다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야곱의 행위가 에서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들의 공격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두 아이를 통해 두 민족이 나누이게 될 것과 두 민족이 서로 다투게 될 것, 그리고 먼저 태어난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창 25:26 _____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잠 20:24 _____

믿음의 기도

- 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 ❷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소서.

3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속이고 속는 자, 야곱

초 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본 문 창세기 47: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힘약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에도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열정이 있고 노력하는 자였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로 움길 수 있는 자신의 지혜와 의지가 더 확실한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창 27:20 _____

그런데 이 속임수를 제안하고 강요했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했지만, 야곱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그릇된 모락을 짠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불법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나누어 보세요.

속는 자, 야곱

갈 6:7 _____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은 즉시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은 악함은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 동안 종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창 31:6~7 _____

뿐만 아니라 그는 자녀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상인들에게 판 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며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가까운 친척과 가족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 37:31~32 _____

하나님께서서는 때때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떠한 악행을 행할 때, 우리에게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 이스라엘

창 47:9 _____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결국을 한 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속이고 속는 세월을 통해서 매우 고생스러운 인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노동 착취를 당하였던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없었더라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찍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젊음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전 12:1~2 _____

젊은 날,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야곱의 자조적인 인생의 고백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행 20:24 _____

딤후 4:7 _____

은혜 아니면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도 야곱이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서 수시로 만나 주셨고, 그가 생사를 다투는 위기 앞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야곱이 인생의 달음질을 무사히 마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를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며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민 23:19 _____

빌 1:6 _____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롬 8:35~39 _____

믿음의 기도

- ❶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 ❷ 우리의 언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4

주간총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인생의 참된 주인

초 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자

본 문 창세기 37:1~5

^①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②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③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④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⑤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라헬이었는데, 그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창 37:3~4 _____

당시, 채색옷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었던 고급스러운 옷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옷을 입고 밖에서 양들을 치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숨김없이 솔직하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창 37:2 _____

미움 속에 있는 요셉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모두 다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꾸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 37:7 _____

창 37:9 _____

그 꿈은 요셉이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부모와 형들이 그에게 절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개인적인 성공을 알려주기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꿈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야곱의 가문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큰 백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 39:2~3 _____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고, 요셉은 충성스럽게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성적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창 39:23 _____

‘어떤 곳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

요셉은 진실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창 45:8 _____

요셉의 젊은 날은 미움과 질투와 오해와 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구원의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롬 8:28 _____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 억울함, 그리고 그것들 외에도 많은 도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자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 15:16 _____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갈 2:20 _____

믿음의 기도

- 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하소서.
- ❷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 ❸ 대학부가 십자가 복음 아래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팀 조 이름:

충현의 만나 2014년 7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장철환A

집필진 | 이기영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